

책머리

River & Culture

기술경쟁은 상생(相生)부터 시작합니다



조영호 | 우리협회 부회장 /
주수성엔지니어링 사장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국가 건설 문화 창출의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선후배님께 인사드립니다.

요즘은 주야로 온도가 심하여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선후배님들도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금년에는 장마가 평년에 비하여 10일 정도 앞당겨져 6월 둘째 주 주말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장마로 인하여 재해취약지구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며, 비단 국민들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의 붕괴사고 등 재해로 인하여 많은 건설 노동자들의 인명피해를 가져와 통상 6월부터 8월까지의 장마로 인하여 전체 재해자와 사망자의 27%와 26%를 상회하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년에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준공이 있는 해로 방재당국의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와 붕괴 등 우려가 높으므로 현장별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범정부 차원에서 도 해당 부처별로 홍수에 대비한 4대강 현장 침수피해 예방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홍수기 전에 임시 물막이 등 물 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을 철거하도록 하고 민관 합동으로 보, 준설사업장과 준설토 적치장, 배수장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 준공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동안의 많은 논란 속에서도 어김없이 진행되어왔으며, 진정한 4대강 살리기는 자연과 인간에 의한 물의 양적, 질적 순환이 균형을 이루는 하천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4대강뿐만 아니라 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중소하천과 유역의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면밀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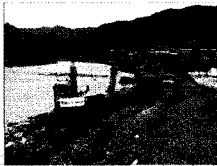
이제 우리나라는 국가의 신성장 동력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실현을 위해 온 국민이 단결하여 중단 없는 전진을 해 나가야 하며, 이미 UN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모범사례로 한국의 4대강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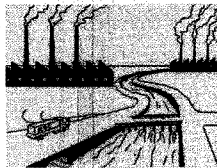
리기 사업에 찬사를 보낸 바 있습니다.

사업이 준공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은 정부의 국책 사업을 믿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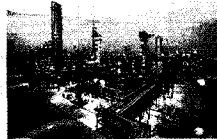


건설업은 국민들을 위한 사업 덕분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역내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투입되어 복구에 인간힘을 쓰고 있는 것도 건설이 주민과 지역과 국민과 함께 살아가는 산업으로서 지역 회생을 위하여 이바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으며, 국가 경제의 위기상황에서도 항상 건설업이 우선시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이 국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이를 최우선 계획하는 엔지니어링에 종사하는 설계기술자의 현실은 대학에서의 공대 기피현상, 사회에 진출하여도 사회전반의 기술자에 대한 인식저하로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자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60, 70년대 이후 건설사업을 성장동력으로 하여 국내외적으로 많은 성장을 해왔으나, 80년대 이후 기술의 천시와 더불어 이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3D 업종 중의 하나로 대두되면서 현실은 기술자로서 제구실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항상 국가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했던 건설기술자들에게 정부는 건설경기의 활성화 및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더불어 엔지니어링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회사의 실적보다는 중소기업의 업체에 종사하더라도 기술력이 있는 기술자를 우선 대우하고, 기술력을 우선시 하는 분위기 조성과 전문기술별로 회사를 활성화

화시켜 전문기술자가 책임 있게 운영하게 하고, 전문분야별로 연합회와 동시에 기술력을 극대화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엔지니어링사나 전문분야사 등도 해당 전문분야별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전문기술자가 회사의 대표자가 되도록 하여 기술발전에 전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에서 실적 없이 시행하는 하도급 수행분도 실적에 포함시킴으로서 대형 엔지니어링사의 기존 실적만 가지고 수수하여 외주처리 후 지분만 챙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엔지니어들이 수행하는 프로젝트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해당분야에 오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실제 수행을 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업의 질은 직접 참여하는 전문기술자의 능



력에 따라서 좌우되므로 실적이라는 것은 전문기술자의 소유권이지 회사의 실적은 의미가 적다고 할 것입니다.



현행 수주제도는 일부 실적이 우수한 회사만 유리하게 만든 제도로 변형되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누기에도 역행하고 있으므로, 상기한 바와 같이 엔지니어들 스스로도 상생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연구개발과 함께 기술향상과 기술제공에 전력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몇 년간 수자원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들이 4대강 사업을 비롯하여, 새만금사업, 농업용저수지 등 다양한 국책사업을 수행하느라 불철주야 노력하였고, 향후 4대강 지류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고향의 강, 소하천정비 등 많은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에 충실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초석으로 이어온 우리 엔지니어는 그동안 닦아온 기술을 토대로 세계로 나아가 모든 나라의 관습, 문화, 신앙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세계에 접목할 수 있도록 동반자적 성격(Concept)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 경쟁력 및 기술력 향상에 이바지함과 더불어 가정에 충실하고, 선후배간 우애를 나누고, 스승님과 부모님께 안부를 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여 우수한 기술력과 더불어 훌륭한 인품을 지닌 기술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금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 내 집 주위에 재해에 노출된 곳이 없는지 둘러보고, 부모님과 친지분들께 안부인사를 전해야겠습니다.

수자원분야 등 전문기술자로서 해당 분야에 전념하시는 많은 선후배님들 항상 건강하십시오. 🌍



2011. 6

한국하천협회 부회장 조영호